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국 기업들 투자에 신중...비즈니스 장비 주문 올해 최악
- Bloomberg: 미 일자리 찾기 힘들다...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21년 말 이래 최고
- Bloomberg: 팬데믹 미국인 저축금 사라져... 경제 여파 실감한다

[미국 금융]

- MSN: 월가 대형 은행들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 Bloomberg: 국채 상승세... 미 경기 후퇴 신호로 금리 인하 베팅 커져

[미 대선]

- CNN Business: 미 대선 핵심 이유는 경제 상황... 현재 미 경제 현주소는?

[미국 무역]

- NYT: 트럼프 재선되면 관세 전쟁 커진다
- CNBC: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낙관적

[부동산]

- Bloomberg: 텅텅 빈 사무실, 상업용 부동산 가치 2,500억 불 증발 위기

[에너지]

- Bloomberg: 미국 LNG의 장기적인 미래, 대선에 달렸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아마존, 재무 부문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활용 확대
- WSJ: FedEx, 화물 부문 분사 검토 중
- CNBC: 샘스클럽, 멤버스 마크 개편으로 코스트코와 경쟁
- WSJ: 월그린, 미국 내 주요 매장 폐쇄 계획 발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Orders for US Business Equipment Match Biggest Drop This Year

미국 기업들 투자에 신중...비즈니스 장비 주문 올해 최악

- 5월 미국 비즈니스 장비에 대한 주문이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해 미국 기업들이 고금리와 수요 둔화 속에서 투자에 대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비즈니스 장비 투자를 가능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 총가치가 지난달에 0.6% 하락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3년 이상 사용하는 모든 내구재 주문은 0.1% 상승했는데 군사 항공기 주문이 주도했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0.1% 감소했다. 많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에는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의 제조 생산은 모멘텀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Recurring Jobless Claims Rise to Highest Since End of 2021

미 일자리 찾기 힘들다...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21년 말 이래 최고

-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지난해 말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건수가 6월 15일 끝나는 주에 1백84만명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반면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3천건으로 줄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ericans' Pandemic Savings Are Gone — And the Economy Is Bracing for Impact

팬데믹 미국인 저축금 사라져... 경제 여파 실감한다

- 지난 수년 동안 연방정부가 지원한 미국인 팬데믹 지원금이 수개월 전 고갈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왔던 소비자의 소비력이 힘을 잃고 있다.
- 연체율이 늘고 있으며 기업들은 최근 실적을 통해 소비 지출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소비 지출은 4월에 감소했는데 5월에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낮은 가솔린 가격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인플레이 조정 소비자 지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4월에 이미 크게 감소한 탓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편 미국 경제의 두 개 원동력은 강한 노동시장과 팬데믹 동안의 2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었다.

- 샌프란시스코 연준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지원 저축금은 3월에 완전히 바닥나 소비자의 지출력이 약화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MSN: Big banks pass Fed stress test as they fight stricter capital rules 월가 대형 은행들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 31개 대형 미국 은행들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했는데 향후에 심각한 글로벌 침체에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어제 수요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있으며, 실업률이 10%에 상업용 부동산이 40% 급감하고 주식시장이 55% 하락한다고 예상하는 2년 시나리오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뮬레이션에서 이들의 손실은 총 6천8백50억불로 크레딧 카드 손실이 1천7백50억불, 비즈니스 용자 손실이 1천4백20억불,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8백억불 규모로 나타났다.

MSN 기사

Bloomberg: Treasury Yields Fall After US Economic Reports 국채 상승세... 미 경기 후퇴 신호로 금리 인하 베팅 커져

- 최근 일련의 미 경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 국채 시장은 연준이 경기를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을 늘렸다.
- 즉, 지속적인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상승과 비즈니스 주문 장비의 감소가 오늘 발표된 이후 국채는 상승했다. 더욱이 모기지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구매 모멘텀을 약화시킴에 따라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계약 진행 중인 지표가 기록적으로 떨어졌다.
- 10년물 국채는 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28%를 기록 중이다. 오늘 목요일 오후 4백40억달러 규모의 국채 7년물이 매각될 예정이며 이번 주 금요일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CNN Business: It's the economy, stupid.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it for the presidential debate

미 대선 핵심 이유는 경제 상황... 현재 미 경제 현주소는?

- 오늘 목요일 오후 6시 미 대선 토론회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클린턴 대통령 캠페인 시절,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이슈가 현재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도 가장 큰 이슈는 경제 문제.
- **실업률**: 그동안 건전한 실업률을 보였으나 양호한 수준은 지난달에 끝났다. 3.9%에서 4%로 상승했다. 채용가능한 일자리도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갓 졸업한 대졸자(20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은 12%가 넘는다.
- **인플레이**: 인플레이는 2년전의 9%에서 작년에 4%로 감소했으며 지난달에는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감소했는데, 4월의 3.4%에서 3.3%로 감소했다. 가격 인하가 모든 소매 체인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주택**: 주택 매물 부족으로 지난 11개월간 연속으로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30년 고정 모기지율도 최근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22년 이전의 10년간보다 높은 모기지율을 보이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집값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어 임대료도 더 올라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무역]

NYT: Trump Eyes Bigger Trade War in Second Term

트럼프 재선되면 관세 전쟁 커진다

- 트럼프는 자신을 ‘관세 맨(Tariff Man)’이라고 자처하면서 오랫동안 “관세로 인해 미국 제조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입 격차가 줄어들면서 미국인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재 그는 많은 수입품에 대해 10배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는 이럴 경우 관세 전쟁이 더 커져 고물가가 더 악화되고 미국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물론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가 수입을 줄이고 일부 산업에 대한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철강, 반도체, 컴퓨터 장비 등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면 전반적인 혜택이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연구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들과 제조업체들에 고물가를 경험하게 하고 상대국의 보복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해 미국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 MIT공대의 David Autor 경제학 교수는 “관세 부과는 쉽게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NYT 기사

CNBC: Trade feuds aside, Chinese firms are committed to the U.S. market, survey shows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낙관적

- 최근 미국 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은 미중 관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에 소재한 중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연례 설문조사에서 60%가 미국 내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했고 30%는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부동산]

Bloomberg: Empty Offices Risk Wiping Out \$250 Billion in Commercial Property Value

텅텅 빈 사무실, 상업용 부동산 가치 2,500억 불 증발 위기

-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의 지속으로 2026년까지 미국 전체 사무실 공간의 약 ¼이 공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최대 2,500억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 올해 1분기 사무실 공실률은 19.8%였으나, 2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임대 수익이 80억 달러에서 100억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4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 가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무디스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고용주들이 사무실 공간을 축소하거나 다년 임대에서 유연한 단기 공동근무 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와 대출 기관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미 기업의 85%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했고, 미국 주요 도시의 오피스 점유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50%에 불과하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American LNG’s Long-Term Future Hinges on Election

미국 LNG의 장기적인 미래, 대선에 달렸다

- 바이든과 트럼프가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맞붙을 예정이며,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유, 재생 에너지, 인플레이션 억제법,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LNG)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 미국은 올해 이미 LNG 최대 수출국이 되었지만, 여러 기업이 수출 용량을 늘리기 위해 경쟁하면서 업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검토를 이유로 신규 터미널 승인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는 민주당 좌파의 지지자들을 기쁘게 했지만, 에너지 업계와 일부 온건파 민주당원들의 반발을 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단이 일시적이라고 밝혔지만, 재선 시 일부 프로젝트는 더 높은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다.
-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즉시 유예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는 LNG의 주요 소비국인 중국과의 외교 정책과 무역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에너지 부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mazon Leans Into Generative AI to Manage Its Finances 아마존, 재무 부문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활용 확대

- 아마존이 재무 분야 전반에 걸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규칙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후 머신 러닝을 적용했으며,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 더 복잡한 분석을 지원한다.
- 재무팀은 사기 방지, 계약 검토, 개인 생산성 향상, 규칙 및 규정 해석, 세금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mazon의 재무 기술 담당 부사장인 Dave George는 "우리는 기술을 실험하고 배우는 데 속도를 내고 싶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잘 컨스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Trucking Experts Project Spinoff of FedEx's Freight Business FedEx, 화물 부문 분사 검토 중

- 운송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FedEx가 화물 부문을 별도의 상장 기업으로 분사하면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트럭 운송 부문의 다른 경쟁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edEx Freight는 지난 1년 동안 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트럭보다 작은 화물(LTL) 부문에서 가장 큰 사업자이다.

- SJ 컨설팅의 Satish Jindel은 LTL 사업에서 FedEx의 경쟁사들이 강력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분사가 이루어지면 FedEx Freight는 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LTL은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FedEx는 화요일 실적 발표에서 FedEx Freight의 역할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잠재적 조치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WSJ 기사

CNBC: How Walmart-owned Sam's Club is trying to take on Costco's private label Kirkland 샘스클럽, 멤버스 마크 개편으로 코스트코와 경쟁

- 샘스클럽이 더 많은 매장을 오픈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멤버스 마크 (Member's Mark)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간 매출이 약 두 배 많은 코스트코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 최근 회계연도에 샘스클럽의 순매출은 862억 달러로, 코스트코 미국의 1,766억 3,0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샘스클럽의 CEO Chris Nicholas는 브랜드 개편이 코스트코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 그는 “클럽 모델은 뛰어난 상품을 만들거나 구매하는 데 집중하는 뛰어난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코스트코는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Kirkland)와 함께 이를 훌륭하게 해냈고 우리는 그 성공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 샘스클럽은 향후 4년 동안 3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며, 멤버스 마크의 성공 여부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매업 분석가 Michael Baker는 샘스클럽이 코스트코와 그 인기 있는 개인 상표를 추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커클랜드 시그니처를 통한 코스트코의 성공이 샘스클럽이 따를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WSJ: Walgreens Plans Major U.S. Store Closures 월그린, 미국 내 주요 매장 폐쇄 계획 발표

- 월그린의 CEO Tim Wentworth가 실적이 부진한 매장을 폐쇄하고 1차 의료 사업 진출을 철회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Wentworth는 미국 내 약 8,600개의 매장 중 상당수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직 최종 매장 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수익성이 없는 매장의 약

¼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년 동안 “의미 있는 비율”의 매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한 월그린이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VillageMD의 지분을 축소하여 더 이상 회사의 대주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월그린은 일부 다른 사업부는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해외 약국 체인인 Boots와 전문 약국 회사인 Shields Health Solutions는 철수 계획이 없으며, 미국 내 소매점 축소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엔화 추락...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 가치도 1년7개월 만에 최저

"엔화 약세, 미 연준의 세계 금융시장 지배력 보여줘"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아시아 통화 가치도 1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인덱스는 89.98로, 2022년 11월 3일(89.09)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시아 달러 인덱스는 원화, 중국 위안화, 싱가포르 달러화, 인도 루피화, 대만 달러화, 태국 밧화 등 9개 아시아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